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김 위 정**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치활동경험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가정배경과 가족관계, 중1때 공동체 의식을 통제하고도 학생회 참여 여부와 동아리 활동 정도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의 학생 인권존중 문화에 대한 인식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수준 변수로 혁신학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학교문화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의 인권존중 문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집단간 비교 결과, 학생회 참여 여부가 공동체 의식에 이르는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동아리 활동 정도(소극적 참여/적극적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더 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의 민주적 학교문화가 이러한 차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학생회 참여 효과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혁신학교 내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주제어: 공동체의식,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동아리, 사회적 유능감, 민주적 학교문화

* 본 연구는 제1회 경기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힘.

**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kiwi77@gie.re.kr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주시민의 육성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으로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세계화,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 속에서 이러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다문화·다원화 사회에서 타인과 원만히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갈등조정능력, 공동체의식 등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핵가족화, 도시화 등 공동체 해체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박가나, 2009).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입시위주 교육, 물리적 여건의 한계 등 여러 가지 학교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민주시민 교육도 주로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허인숙, 이정현, 2004; 김명정, 2009; 김경훈, 2014). 지식습득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은 인지적인 사고능력과 시민성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여줄 수 있으나 이것이 실제적인 참여와 행동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은 극한의 경쟁구도나 비민주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식중심의 시민교육은 공동체의식 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박가나, 2009).

이러한 인지적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와 체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는 시민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Youniss, McLellan, Su & Yate, 1999). 박가나(2009)에 따르면 최근 시민교육에서 공동체 참여 능력의 함양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체험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은 시민성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은 학교에서는 학교나 학급의 자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수업내 사회참여활동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교외 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단체 참여, 자발적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자치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교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학교 활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이슈를 공적 과제로 접하고(박정서, 2012)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직접적으로·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사회참여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실 수업을 통한 참여 교육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고, 그보다는 교내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이 실제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명정, 2009). 많은 연구들이 교내 자치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을 포함한 시민의식 또는 정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박가나, 2001; 김은미, 2012; 김경훈, 2014; 김위정, 2012; 나혜원, 2014), 이는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주로 참여여부 자체의 효과에 주목한 반면에 참여 경험의 질적인 차이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문제는 학교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자치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낮은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참여가 활발한 학교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따라서 자치활동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자치활동의 질적인 차이는 학교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간 관계가 동등하고, 학생을 학교 운영의 주체로 바라보고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자치활동이 더욱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혁신학교가 이러한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혁신학교는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 원리와 관련해서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12). 이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로 학교 자치활동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경기도교육청, 2012). 혁신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없지만, 혁신학교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학교 만족도가 높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백병부, 송승훈, 남미자, 이경아, 2013; 이윤미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활동의 경험이 시민성의 하위 요소로서 공동

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학교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자치활동 경험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여, 학교 자치활동의 경험의 시민교육적 효과가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학생 자치활동이란 “학생들이 학급구성원으로서, 또는 학교 전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급 또는 학교 전체의 공공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말한다(박가나, 2001). 또한 여러 가지 의사기구나 표현을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도 넓은 의미의 학생자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환, 2012). 자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 속에서 운영되며, 좁게는 자율활동 중에서 자치활동으로 1인 1역, 학급회 및 학급부서 활동, 학생회 협의활동, 운영위원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등의 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넓게는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학생 자치활동의 경험이 시민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천희완(1999)은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 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특별활동(클럽, 학급활동, 학생회 활동)에서 민주적 운영, 학생의 의견 반영,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의견 교환, 학생들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높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은미(201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이 시민성(자율성,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관용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시민성의 하위요소가 모두 더 높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율성과 참여의식이 더 높으며, 동아리 가입의 내적참여도에 따른 차이는 시민성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나(2001)는 학생회 경험의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학생들의 학생회 임원 참여나 건의, 항의, 캠페인 참여 등의 직접적 경험이 투표참여보다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활동이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혜원(2014)은 혁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 프

로그래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관심은 민주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정(2012)은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등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이러한 학교활동 참여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교 밖 청소년 참여활동도 시민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나(2009)는 교외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소속 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할수록,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가 더 높다는 것, 참여활동 과정이 숙의적일수록 공동체의식 함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명정(2009)은 청소년의회 활동이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관용, 참여의식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유혜영(2014)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자아 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사회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용교와 이중섭(2010)은 사회참여활동은 친사회성과 사회적 신뢰를 매개로 시민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효능감은 청소년 활동이 시민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생자치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가나, 2009; 조윤정, 박미희, 박진아, 이지영, 2015).

첫째,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특히, 동료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친밀한 동료관계는 타인과 갈등을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Wentzel & McNamara, 1999; Zaff, Moore, Papillo & Williams, 2003).

둘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으며,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권한이 실제적으로 행사되는 경험을 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효능감과 신뢰가 증대하며, 이는 이후 더 큰

사회 참여로 발전될 수 있다.

셋째,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육성할 수 있다.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 책임을 느끼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참여가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공동체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 민주적인 행동방식 등의 시민적 가치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와 같은 비민주적, 배타적인 공동체주의도 존재하며, 이러한 우리사회의 비민주적 요소들로 인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집단이기주의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가나, 2009).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민주적 시민성의 주요한 요소이지만, 공익적 관점과 민주적 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의 경로는 청소년 활동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문화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지식중심적인 시민교육은 공허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불신만 증대시킬 수 있고(박가나, 2009),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의식, 민주적인 행동방식과 시민적 가치를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주외(2013)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활동은 교육적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참여 활동의 질적 차이의 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학교 활동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민주적 정치태도가 증가하거나(천희완, 1999), 학생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할수록 공동체의식 함양 효과가 크다(박가나, 2009)는 연구결과들도 그러한 질적인 차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가 일반학교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혁신학교 학생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높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백병부 외, 2013; 이윤미 외, 2013), 교사관련 연구들은 혁신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경험하며(박종철, 2013), 자사고 교사들보다 학교의 조직풍토를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함(박용원, 조용하, 2013)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며, 학교의 제도적 지원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정 외, 2015)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조운정 외, 2015),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학생 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III.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의 중학교 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2012년 85개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64개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장과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과 학교 내 교육경험 등을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매년 조사할 계획이다. 중학생은 총 40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차년도에는 177명을 제외한 총 3874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2. 변수설명

먼저 종속변수는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의 시민성과 관련되어서 주요한 하위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지며(이용교, 이중섭, 2010), 사회참여의 기반이 된다(유혜영, 2014; 박가나, 2009)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동체의식은 경기교육종단연구의 시민의식 문항 중에서 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나는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같은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0.807, 2차년도 0.820로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의 경험은 학생회 참여 여부와 동아리활동 참여 정도로 측정하였다. 학생회참여여부는 학급 또는 학교 학생회 임원 활동 여부의 더미변수이고, 동아리활동은 한달 평균 동아리 활동 여부를 활동안함, 1~2회, 3~4회, 5~8회, 9회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가족배경과 관련해서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가족관계를 통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고, 지지적·수용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시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위정, 2012)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력은 부와 모 중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거나 한명의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의 값을 이용하였다. 중졸 이하는 9, 고졸 이하는 12, 2~3년제 대졸은 14, 4년제 대학 졸은 16, 석사는 18, 박사는 21의 값을 부여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1을 더한 뒤 로그 변환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1차년도와 2차년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문항은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부모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부모님은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부모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부모님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하신다/나는 부모님을 믿는다는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0.926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도 중요한 매개 변수로, 1, 2차년도 모두 5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나는 단체생활을 잘 한다/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해 모두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1차년도 0.882, 2차년도 0.902로 적절하였다.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인권존중문화와 학교운영참여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인권존중문화는 학교 만족도 관련 문항 중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학교운영참여는 ‘학교운영(예산,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 수 없다 3개 범주로 응답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두 변수의 경우에는 학교평균 값을 구하여 학교수준 변수로도 활용하였다.

표 1
변수설명

	변수설명
공동체의식(중2)	5문항 평균, 5점 척도
공동체의식(중1)	5문항 평균, 5점 척도
학생회참여여부	학급 또는 학교 학생회 임원 활동 여부
동아리활동참여	한달기준 동아리활동 참여 정도 (활동안함, 1~2회, 3~4회, 5~8회, 9회 이상)
부모교육년수	중졸이하=9, 고졸=12, 2~3년제 대졸=14, 4년제 대졸=16, 석사 졸업=18, 박사졸업=21
로그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로그변환 값
가족관계	6문항 평균, 5점 척도
평균성적	국, 영, 수 성취도 검사 평균점수
사회적유능감(중2)	5문항 평균, 5점 척도
사회적유능감(중1)	5문항 평균, 5점 척도
인권존중문화	학교만족도중 인권존중 문화, 5점 척도, 학생응답
학교운영참여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정도, 3개 범주, 학생응답
인권존중문화평균	인권존중문화의 학교 평균값
학교운영참여평균	학교운영참여의 학교 평균값
혁신학교여부	혁신학교=1, 일반학교=0

분석에 포함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전체 63개 학교 중에 혁신 학교는 19개교이며, 다층분석의 경우에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결측이 있는 사례들을 제외한 3686명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에는 3791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변수값에 대하여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이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경우에 혁신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높고, 인권존중문화와 학교운영참여 평균도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

	전체		일반학교		혁신학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동체의식(중2)	3.47	0.69	3.46	0.69	3.51	0.69
공동체의식(중1)	3.43	0.70	3.42	0.70	3.47	0.72
학생회참여여부	0.13	0.33	0.12	0.33	0.14	0.35
동아리활동참여정도	2.36	0.98	2.37	1.00	2.35	0.94
부모교육년수	14.40	2.34	14.35	2.35	14.56	2.32
로그가구소득	6.01	0.59	6.01	0.58	6.02	0.61
가족관계	3.59	0.85	3.62	0.85	3.51	0.85
평균성적	56.68	21.40	56.80	21.51	56.30	21.05
사회적유능감(중2)	3.98	0.70	3.98	0.69	3.99	0.73
사회적유능감(중1)	3.95	0.70	3.95	0.69	3.97	0.71
인권존중문화	3.25	0.89	3.23	0.88	3.33	0.93
학교운영참여	1.90	0.81	1.85	0.79	2.06	0.83
인권존중문화평균	3.25	0.23	3.22	0.21	3.33	0.27
학교운영참여평균	1.90	0.20	1.85	0.16	2.06	0.23
혁신학교여부	0.25	0.43				
사례수	3686		2766		920	

3. 분석모형

우선, 학생을 1수준, 학교를 2수준으로 한 다층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학생자치활동 경험, 가정배경, 학교문화 변수가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ij} = \gamma_{00} + \sum_{q=1}^Q \gamma_{0q} Z_{qj} + \sum_{p=1}^P \beta_{pj} X_{p ij} + u_{0j} + e_{ij}$$

X : 학생수준 독립변인 (P: 학생수준 독립변인의 수)

Z : 학교수준 독립변인 (Q: 학교수준 독립변인의 수)

Y_{ij} 는 j학교 i학생의 공동체의식, X는 학생수준 독립변인으로 학생회 참여 여부, 동아리활동 참여 정도, 가정배경, 사회적 유능감 등을, Z는 학교수준 독립변인으로 혁신학교 여부, 인권존중문화 평균, 학교운영참여 평균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다층모형을 통하여 가정배경과 성취도수준, 중1때 공동체의식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고도 학생자치활동경험과 학교문화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중1때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수에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중1때 공동체의식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역인과관계의 문제를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학생 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 간에 여러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집단간 경로계수의 비교를 통하여 혁신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효과가 일반학교와 다른지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 검증을 통하여 학교문화나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 학생자치활동 경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상호작용항을 많이 투입할 경우 계수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혁신학교와 학교문화의 효과가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유능감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경로에서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IV. 분석결과

1. 다층분석 결과

다층분석은 학생회참여 여부, 동아리활동 참여 정도와 통제변수들(부모교육년수, 로그가구소득, 평균성적, 중1때 공동체의식)만 투입한 모형1, 여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추가한 모형2, 모형2에 학교문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추가한 모형3, 모형3에 학교 문화를 추가한 모형4의 4단계로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1의 경우에 학생회 참여 여부와 동아리 활동 정도, 가족관계, 평균성적, 중1때 공동체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1때 공동체의식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는 중1에서 중2 사이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자녀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지적, 수용적일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성적도 유의했는데, 성적이 좋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학생회 참여여부도 유의해서 학급 또는 학교 학생회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아닌 학생보다 공동체의식이 0.086만큼 더 높았다. 효과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중1때 공동체의식을 통제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활동은 그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동아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해서 한달평균 1~2회 정도 참여하는 학생은 공동체의식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한달평균 3~4회, 5~8회, 9회이상 참여하는 학생은 공동체의식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러나 평균5~8회 이상 참여하는 학생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2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유능감은 학생자치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참여활동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모형2에서도 그러한 매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이 1 표준편차 커질수록 공동체의식이 0.14만큼 커졌으며, 반면에 동아리 활동정도와 학생회 참여여부 모두 효과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회와 동아리 참여의 효과가 사회적 유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3에서는 학교의 인권존중문화와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존중문화가 있다고 느낄수록 공동체의식은 향상된 반면에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 경험 외에도 일상적인 교사-학생관계 등 학교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경험한 학생이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교사-학생 관계는 더 넓은 범위의 대인 관계, 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적인 행동방식과 책임감 등의 시민적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촉진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경험 속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권존중의 문화를 더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공동체 의식을 매개할 가능성도 있다. 모형3에서 동아리활동정도나 학생회 참여여부, 사회적 유능감 변수의 계수가 약간씩 작아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모형4에서는 혁신학교 여부와 학교문화 변수(인권존중문화, 학교운영참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학교 여부는 10% 수준에서 유의해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공동체의식이 0.45 높았으며, 반면에 인권존중 학교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운영참여 정도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운영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느끼는 학교일수록 오히려 공동체의식 정도가 낮았다.¹⁾

1) 인권존중문화와 학교운영참여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0.7)의 경우 일반학교(0.5)보다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학교, 인권존중문화를 제외하고 학교운영참여 변수만 투입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혁신학교, 인권존중문화, 학교운영참여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학교문화 변수의 효과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3

공동체 의식 다층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학생수 준변인	동아리활동정도(1~2회)	0.002	-0.018	-0.024	-0.029
	동아리활동정도(3~4회)	0.059+	0.029	0.025	0.022
	동아리활동정도(5~8회)	0.07	0.055	0.041	0.038
	동아리활동정도(9회이상)	0.123**	0.109*	0.086+	0.082+
	학생회참여여부	0.087**	0.056+	0.049+	0.051+
	부모교육수준	0.004	0.005	0.006	0.005
	로그가구소득	-0.005	-0.019	-0.016	-0.015
	가족관계	0.082***	0.049***	0.035**	0.035**
	평균성적	0.003***	0.002***	0.002***	0.002***
	공동체의식(중1)	0.469***	0.437***	0.438***	0.439***
	사회적 유능감		0.200***	0.187***	0.185***
	인권존중문화			0.070***	0.070***
	학교운영참여(2)			0.034	0.035
	학교운영참여(3)			0.018	0.025
학교수 준변인	혁신학교 여부				0.045+
	인권존중문화평균				0.038
	학교운영참여평균				-0.144+
절편		1.360***	0.893***	0.772***	0.886***
분산	학교절편	0.04	0.05	0.04	0.04
	학생절편	0.58	0.57	0.56	0.56
설명량 *	학교절편	0.53	0.49	0.53	0.60
	학생절편	0.15	0.18	0.18	0.18
	총분산	0.20	0.21	0.22	0.23

*무조건 모형의 분산과 비교하여 감소한 분산의 비율

+ $p<.10$ * $p<.05$ ** $p<.01$ *** $p<.001$

무선효과와 설명량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학교 절편의 분산은 0.09, 학생절편의 분산은 0.69임)과 비교해서 모형1은 총분산의 20%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4는 총분산의 23%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수준 변수만 투입한 모형1, 2, 3에서도 학교 절편의 5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많은 부분이 학생특성의 차이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4에서도 학교절편의 60%정도 밖에 설명되지 않아서 아직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의 학교간 차이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조방정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학교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학생회 참여와 동아리 참여를 별개의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자치활동경험이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학교의 인권존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우선, 집단간 비교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집단별로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학생회참여와 동아리활동 모두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검증

	χ^2	df	TLI	CFI	RMSEA
학생회참여	2314.155	252	0.919	0.925	0.066
동아리활동	2300.021	252	0.917	0.923	0.066

먼저 학생회 참여에 대해서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살펴보면, 몇몇 주요한 경로에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학생회 참여 여부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학교에서는 계수의 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지만,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계수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고,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회 참여가 인권존중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도 혁신학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혁신학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모형의 모수추정치(학생회 참여)

	기저모형						동일성 제약 모형		
	일반학교			혁신학교					
	경로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학생회참여> 공동체의식	0.025	0.030	0.015	0.086+	0.046	0.056	0.041+	0.025	0.028
인권존중문화 ->공동체의식	0.056***	0.010	0.091	0.063***	0.010	0.112	0.059***	0.009	0.105
사회적유능감 ->공동체의식	0.221***	0.017	0.268	0.160***	0.025	0.206	0.203***	0.014	0.264
공동체의식(1차)->공 동체의식	0.502***	0.026	0.529	0.560***	0.037	0.614	0.519***	0.025	0.579
학생회참여> 인권존중문화	0.167***	0.051	0.061	0.243**	0.088	0.090	0.186***	0.044	0.069
인권존중문화 ->사회적유능감	0.131***	0.013	0.176	0.123***	0.014	0.168	0.128***	0.012	0.177
학생회참여> 사회적유능감	0.189***	0.039	0.094	0.301***	0.067	0.153	0.218***	0.034	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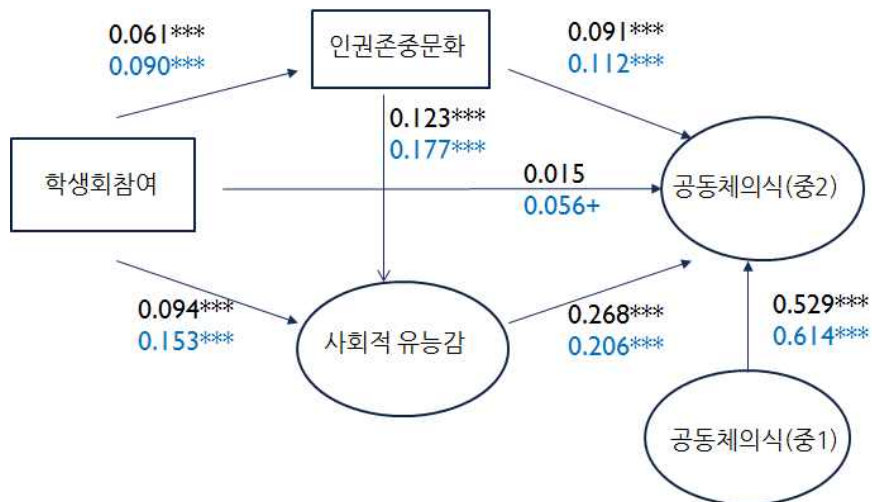


그림 1. 학생회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위의 계수는 일반학교, 아래 계수는 혁신학교임, 기저모형)

그러나 주요한 경로에 집단간 동일성 제약을 가하고 기저모형과 비교해본 결과, 모든 모형이 기저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모든 경로에 동일성 모형을 가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0.065, CFI=0.925, TLI=0.921).

동일성 제약 모형을 살펴보면, 학생회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으로, 또한 인권존중 문화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화계수 값을 살펴보면, 학생회참여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보다는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비교(학생회 참여)

	X2	df	$\Delta X2$	Δdf	p
기저모형	2314.155	252			
학생회→공동체의식	2315.367	253	1.212	1	0.270
학생회→유능감	2316.278	253	2.123	1	0.145
학생회→인권존중문화	2314.712	253	0.557	1	0.455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324.451	259	10.296	7	0.172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참여²⁾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기저모형의 경우, 학생회 참여와 마찬가지로 몇몇 주요한 경로에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동아리 활동의 참여정도가 공동

2) 동아리활동 참여 정도는 5개 범주로 조사하였으나 다층분석 결과 범주간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한달에 평균 1~2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여 여부보다는 참여 정도에 따라서 전혀 하지 않음과 평균 1~2회 참여는 소극적 참여, 평균 3회 이상은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학교에서는 계수의 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지만,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계수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고,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아리활동이 인권존중문화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보다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형의 모수추정치(동아리 활동)

	기저모형						동일성 제약 모형 (동아리활동)공동체의식만 제외		
	일반학교			혁신학교					
	경로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동아리활동-> 공동체의식	0.002	0.021	0.001	0.092**	0.034	0.081	0.007 0.082**	0.020 0.030	0.006 0.072
인권존중문화 ->공동체의식	0.059***	0.010	0.097	0.061***	0.011	0.108	0.060***	0.009	0.097
사회적유능감 ->공동체의식	0.218***	0.017	0.262	0.168***	0.025	0.218	0.203***	0.015	0.244
공동체의식(1차)-> 공동체의식	0.512***	0.027	0.539	0.553***	0.037	0.612	0.524***	0.025	0.550
동아리활동-> 인권존중문화	0.109**	0.036	0.058	0.045	0.066	0.022	0.095**	0.031	0.050
인권존중문화 ->사회적유능감	0.137***	0.013	0.185	0.139***	0.014	0.190	0.137***	0.013	0.185
동아리활동-> 사회적유능감	0.078**	0.027	0.056	0.024	0.050	0.016	0.065**	0.024	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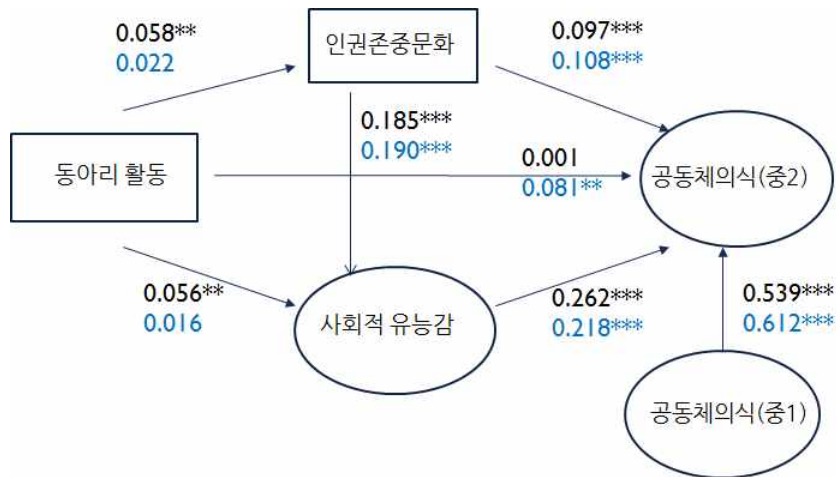


그림 2. 동아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위의 계수는 일반학교, 아래 계수는 혁신학교임, 기저모형)

기저모형과 주요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동아리활동에서 공동체의식에 이르는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이는 동아리활동 정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다르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모형에서 동아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일반학교가 0.006, 혁신학교는 0.072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모형의 적합도 괜찮은 수준이다(RMSEA=0.065, CFI=0.924, TLI=0.919).

학생회 참여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참여정도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으로, 또한 인권존중문화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표준화 계수값을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유능감과 인권존중문화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회 활동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비교(동아리활동)

	X^2	df	ΔX^2	Δdf	p
기저모형	2296.928	252			
동아리->공동체의식	2302.182	253	5.254*	1	0.022
동아리->유능감	2297.834	253	0.906	1	0.341
동아리->인권존중문화	229.654	253	0.726	1	0.394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307.975	259	11.047	7	0.137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평균성적, 가족관계 등 개인배경과 1학년 때 공동체의식을 통제하고도 학생회참여 여부와 동아리활동 정도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회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더 높았다.

학생수준에서는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의 학생 인권 존중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효과를 가졌는데, 이는 학생자치활동 경험의 효과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갖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며,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동료 관계, 교사-학생 관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시민적 가치를 습득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의 경험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주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회적 유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혁신학교 여부와 학교문화 변수를 추가한 결과,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권존중 학교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참여 정도는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인권존중 학교문화와 학교운영참여, 세 변수 간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존중의 개인적 경험은 유의한 반면에 인권존중 학교문화 또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참여 정도와 같은 학교문화의 맥락적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지점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이르는 경로,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의 인권존중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이르는 경로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 차이도 드러나는데, 학생회 참여 여부가 공동체의식에 이르는 경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반면에 동아리 활동 정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학교의 민주적 문화가 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의 경우에는 공공의 문제와 공공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참여경험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보다는 공동체의식과 더 관련이 깊은 반면에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단순 여가 활동처럼 공동체의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 그 활동의 성격을 떠나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에 학생들간 관계나 교사-학생간 관계가 더 민주적이고 친밀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학교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맥락을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민주성 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데 동아리 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회 참여의 경우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학교 내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혁신학교 내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의 질적 차이가 혁신학교 내부의 차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혁신학교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혁신학교 내부의 어떤 차이로 인하여 학생회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가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교내 자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가 학교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2). **혁신학교 기본문서**. 수원: 경기도교육청.
- 김경훈 (2014). **학생자치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K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정 (2009).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은미 (2012). **고등학교 교내 동아리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국제 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연구보고 RR 2010-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나혜원 (2014). **혁신학교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이 초등학생의 민주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나 (2001).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용원, 조용하 (2013). 자율형고등학교와 혁신고등학교의 조직풍토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 비교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3), 107-127.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학생회 선거 참여 경험과 시민교육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9(6), 49-77.
- 백병부, 송승훈, 남미자, 이경아 (2013).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성과분석**.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8), 141-166.
- 이병환 (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방안**(Issue Paper 2012 제6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 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윤미, 백병부, 성열관, 송순재, 이형빈, 정광필 (2013).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 혁신 방안 연구: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조운정, 박미희, 박진아, 이지영 (2015). **경기도 학생자치 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천희완 (1999).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현주, 이해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 한혜성 (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연구보고 RR 2013-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Wentzel, K. R., & McNamara, C. C.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114-125.
- Youniss, J., McLellan, J. A., Su, Y., & Yates, M. (1999).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2), 248-261.
- Zaff, J. F., Moore, K. A., Papillo, A. R., & Williams, S. (2003). Implications of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during adolescence on positive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6), 599-630.

ABSTRACT

The effect of self-governing activities on a sense of community: A comparison between an innovation school and general school

Kim, Wuijeong*

This study analyzed the way in which students' experiences of self-governing activities have an effect on a sense of community. The study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innovation schools and general schools by using the data of the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The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indicated that participation of students councils and club activ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nse of community, controlling family background,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previous year. Social efficacy, and cognition for school's level of respect for student righ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as well. In relation to the variables of school levels, the school type appeared to be also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innovation school students show higher levels of a sense of community compared to general school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the experience of self-governing activitie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the sense of community, which is mediated by self efficacy and the school atmosphere of respect for students rights. A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types of school does not reveal that the differences of pathway in which participation into the student council leads to a sense of community. However, the effect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turns out to be stronger in innovation schools than general schools. Although it is possible that the culture of a more democratic school contributes to this differenc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considering the large deviations which exist in innovation schools.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student council, school club, social efficacy, democratic school culture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1. 29, 심사완료일: 2016. 2. 12

*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